

5/5 누가복음 24장 13-35절

제목: 믿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

대지: 꺾여진 소망 / 부활하신 예수님

본문 속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소 충격적인 유월절을 보내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게 대해 대화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에서 사용된 동사는 매우 열띤 토론과 논쟁을 하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르며 소망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평범하고 일반적인 모습이면서도 몇 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나누는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자 그들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선지자인 예수를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을 받게 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소망하고 꿈꾸었으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소망이 꺾였기에 슬픔과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어 여인들이 비어있는 돌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보았고 제자들 중 몇몇도 동일한 것을 보고 들었으나 아직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의 미련함과 더디 믿는 마음을 꾸짖으시며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이야기 하시며 설명해주셨고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진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권하고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축사하여 떡을 떼어주시니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깨닫는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들은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에게 이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여인들이 처음 전했을 때에 제자들은 달려가 비어 있는 돌무덤을 확인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믿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보이는 불신과 회의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기대한적도 없고 소망한 적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라졌고 예수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제자들로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메시아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소식이 보다 가까움을 듣지만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눈이 뜨이게 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재림을 앞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우리는 이 소식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이를 듣는 이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길 간구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5/12 레위기 10장 1-7절

제목: 거룩과 순종

대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한줄요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도 제사장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더욱 구별되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중심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룩'일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었습니다. 피를 두 그릇에 나누어 담고 한 그릇에 있는 피는 제단에 뿌렸고 다른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피는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언약을 파기할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언약의식을 체결하고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간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곧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백성의 언약함과 불신앙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회복하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를 포함한 의식, 제사장, 정결법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하며 아론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제사장에 대한 엄격한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앞서 나오는 8장과 9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이들의 모습과 대조하여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은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사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는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로 삼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불'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잘못됨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성결한 의식을 수행하고 백성들에게 거룩에 대해 가르치는 의무를 가진 이들이기에 가장 큰 책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위임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기에 백성들 중에서도 더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잘못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결과를 받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시체에 형제들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가족을 잃은 슬픔 또한 표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억울해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며 구별하신 백성으로서 우리는 삶 가운데 '거룩함'을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것쯤은' 혹은 '나 하나쯤은'이라고 생각하는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끈을 다시 가다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5/19 레위기 16장 1-10절

제목: 하나님의 리셋 버튼

대지: 매년 드리는 속죄 / 단번에 드러진 속죄

한줄요약: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일년에 한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돌아보는 언급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11-15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된 것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며 10-11절은 제사장이 이 차이에 대해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준비됨 없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갑자기 죽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16장은 대제사장이 비슷한 심판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야 하는 의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마무리 됩니다.

속죄일이라는 용어는 레위기 16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23장과 25절에 나오며 희년과 관련하여 50년 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임을 말합니다.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이자 가장 크게 죄 씻음을 받는 날인 속죄일에 모든 빛을 탕감 받는 희년의 해가 선포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속죄 의식을 통하여 앞서 11-15장에서 다루는 이스라엘의 부정을 해결하는 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죄까지도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인 아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예방책은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이유는 지성소에 속죄소 밑에 언약궤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였습니다. 본문은 이어 속죄일 의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제물과 의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속죄일에 있을 의식의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일 의식은 히브리서 10장과 함께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갈 수 있는 날도 속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완전한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드러짐으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의 자리까지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모든 제사들보다 더 강력하고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 매년 속죄일의 드리는 속죄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 모든 제사의 필요를 없애신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일의 제사를 없애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속죄일과 제사의 폐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분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제사장들이 제사와 의식을 준비하며 가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겸손의 마음과 태도를 오늘 날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하며 예배에 임하는 것이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에 도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레위기 ESV Study Bible

레위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NICOT_04. 레위기 (고든 원함)

레위기,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 (박철현)